

경험 많은 백수연·'제2 박태환' 김민섭 결승 진출 기대



⑤ 광주·전남 유망 선수들

다이빙 권하림 지난해부터 두각
추민중·정병영도 수구 대표팀 승선
지역 출신·연고 8명 "최선 다할 것"



추민중



권하림



오희지



김민섭

광주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는 광주·전남 선수들에
계 기회의 마당이 될 전망이다.

홈에서 경기가 열리는 덕분에 경기장 적응이 쉬울
뿐 아니라 해외 대회와 달리 먼거리 이동 없이 훈련
에 집중하는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이 기대된다.

광주·전남지역 연고팀 소속이거나 출신인 선수는
백수연(광주시체육회·김민섭(여수문수중3·이상
경영), 권하림(광주시체육회·다이빙), 반선재(광
주시체육회·오픈워터), 추민중(전남체육회), 오희
지(전남수영연맹), 한효민(한체대), 정병영(한체
대·이상 수구) 등 8명이다.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광주시체육회 백수연
(28)이다. 백수연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여자수
영 평영 종목의 간판이다 이미 지난 3월 2019국가
대표 1차 선발전에서 평영 200m, 100m, 50m 1위
에 오른 바 있다. 이어 백수연이 지난 5월 경북 김천
실내스포츠수영장에서 열린 2019 경영 국가대표 2
차 선발대회 여 일반 평영 200m 결승에서 2분26초
48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평영 100m 결승에
서도 1분08초36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백수연은 국제대회 경험이 풍부하다. 팔목할
성적을 일궈낸 바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해까지 4회 연속 아시안게임에 출전했으며, 지난
2017년 제 98회 전국체전에서 여자 수영일반부 평
영 100m, 200m, 혼계영 400m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2013년 제94회 전국체전 여일반 평
영100m 결승경기에서 1분8초31의 한국신기록으
로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지난 92회·93회 전국체
전 평영100m와 200m에서 2년연속 2관왕을 달성
했다.

백수연은 "이번 수영대회는 홈에서 열리는 경기
라 무척 설레고 기대된다"며 "반드시 결승까지 진출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섭은 중학생으로 세계대회에 출전한 박태환
의 계보를 이을 선수로 평가된다. 최근 국가대표 2
차 선발전에서 남자부 접영 200m에 출전해 경쟁한

실업 선배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 파란의 주
인공이 됐다.

김민섭은 지난 5월
2019 수영(경영) 국가
대표 2차 선발전에서 남
자부 접영 200m에 출
전해 1분58초12의 기록
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
드를 찍었다. 김민섭은
대한수영연맹 KSF 기
준기록(1분58초38)을
통과함과 동시에 국가
대표 선발전 1위를 차지했다.



한효민



정병영



반선재

KSF 기준기록을 통과한 김민섭은 국제수영연맹
의 FINA A 기준기록(1:56.50)에는 못미치지만 이
번 대회 접영 3개 종목 중 유일하게 200m에서 KSF
기록을 통과, 이번 대회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김민섭은 올 시즌 첫 전국 규모 대회인 지난 4월
김천수영대회에서 남중부 접영200m 대회신기록과
접영100m까지 석권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

하지만 수영이 기록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경기력을 냉정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홈 그라운
드라는 잇점이 있지만 수영이 기록경기인 탓에 이
변이 드물기 때문이다.

다이빙 부문에 출전하는 권하림은 지난해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같은해 전국체전 다이
빙 여자일반부 싱크로다이빙 3m, 플랫폼다이빙에
서 금메달을 따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번 대회
에서 1m 스프링보드 개인전과 혼성 10m 싱크로다
이빙종목에 각각 출전한다.

그는 지난해 펼쳐진 2018자카르타-팔렐방 아시
안게임에선 후보 선수로 대표팀 명단에 포함됐으며
지난달 펼쳐진 스페인 FINA 다이빙 그랑프리에선
3m 스프링보드 개인전에서 준결승에 진출했다.

수구에 출전하는 추민중(전남도체육회)도 지난

해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였다. 정희진 전남체육회
생활체육팀장의 아들인 정병영(골키퍼·서울) 선수
도 수구 국가대표팀에 포함돼 선전할 것으로 기대
를 모으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 백수연은 한국 여자수영 평영 종목의 간판주자로 이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활약이 기대
되는 국내 선수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지도부가 지난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우산동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수영대회 북 참여해 드라마 쓰길”

민주당 광주서 현장 최고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광주
를 찾아 북한 선수단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
가를 촉구했다.

지난 5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은 2019광주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준비 현장을 찾아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척'을 기대했
다.

이 대표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엔트리 마감일이 지
났지만 북한 선수단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며
"개막 전날이라도 북한이 참가 의사를 밝히면 바로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또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북한에
대회에 참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
며 "북한의 참여를 통해 대화로 풀린 '평화의 물결
속으로'의 의미를 더욱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
조했다.

민주당 설촌 최고위원도 "남북미 정상이 하루 만
에 마음을 모아 세계가 주목하는 드라마를 썼듯이
북한 선수단 참가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또
다른 드라마를 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에도 북한은 개막이 임박해 참가 의사를 밝혔다. 지
난해 9월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도 북한이
개막 열흘을 앞두고 참가했다"며 "광주시와 조직위
원회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북한 선수단 참가
를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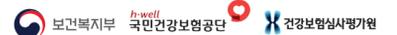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번 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것이라고 믿고 선수촌과 개회식, 대진표 등
을 국제수영연맹(FINA)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한
다"며 "온 마음을 다해 (북한의 참가를) 기다리겠
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틀 전 광주시민이 한
마음 한뜻으로 북한의 참가를 요청하는 한마음대회
를 열었고, 당에서도 적극 도와주고 있어 저희가 희
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선수촌도 북한 쪽에서 참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며 "어제 FINA 코넬 마르콜
레스쿠 사무총장과 북한 측이 개막일 이전에만 참
가하면 참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
혔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대회 입장권 270여장
을 구매한 뒤 이 입장권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
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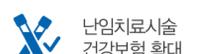
이제, 병원비 걱정은 싹~지우세요!



[2019년 더 든든해지는 건강보험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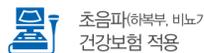
MRI(복부, 흉부, 인연)
건강보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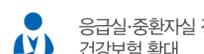
상급병실 23일
건강보험 확대



난임치료기술
건강보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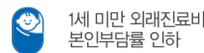
초음파(하복부, 비뇨기, 전립선, 자궁)
건강보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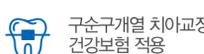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응급실·중환자실 진료
건강보험 확대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
(광충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구순수개별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